

강진,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으로 빈집 손쉽게 찾는다

무안연꽃축제, 뜨거운 열기 속에 막 올려...

강진군이 빈집 정보 검색부터 인구정책 안내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강진군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026 제2차 강진품애(愛)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빈집 정보를 찾는 예비 귀촌인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보기 어려운 신청자도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24시간 AI 챗봇 상담 : 궁금한 점을 챗봇에 물으면 강진품애를 비롯한 주거·일자리·육아 등 인구정책 정보를 안내해 준다. 평일 근무 시간에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운 주민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영상으로 빈집 둘러보기 : 빈집 내부와 주변 환경을 촬영한 영상이 게시돼 있어 희망하는 집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은 행정 업무 효율도 높인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빈집 실태조사 자료가 디지털로 표준화돼 담당자가 빈집 현황과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물대장 등 빈집 관련 서류 발급이나 주소·좌표 변환처럼 손이 많이 가던 반복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돼, 직원들이 단순 작업 대신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강진품애(愛)는 강진군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기 정주 지원 사업이다. 이번 모집부터 군민과 예비 귀촌인은 플랫폼 한 곳에서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인구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빈집을 지도에서 한눈에 : 강진군의 빈집 위치와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 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둘러

/박종욱 기자



강진군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이 최근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개최한 '제29회 무안연꽃축제' 개막식에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를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생태와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선사한다.

개막식은 개막 퍼포먼스와 개막 선언에 이어 인기 가수 이찬원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축제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축제장에는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함께해 회산백련지를 가득 메우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장 곳곳에는 개구리, 양파 캐릭터 등 대형 포토존이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민재 기자

목포시,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 회의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최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청렴시책 추진단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수립·추진 중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의 상반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지연된 과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

으며, 종합청렴도 평가 주요 지표인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실적 등 부서별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청렴도 취약 분야 제감도 향상을 위해 청렴알림톡을 활용한 민원 만족도 조사 운영,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시민과 직원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함평자연생태공원, 다채로운 여름꽃으로 방문객 맞이

전남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이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의 개화와 함께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자연생태공원에 여름철 대표 꽃인 수국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태공원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보이는 수국은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감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초여름의 정취를 물씬 전한다. 최근

개화를 시작한 수국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공원에 수국이 만개하면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수국 군락지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울창한 숲길과 다양한 식생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꼽힌다. 최근

무료 개방 이후 방문객 수가 크게 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공원 내 풍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식물인 나도풍란도 최근 개화에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도풍란은 자생지가 매우 제한적인 희귀 난초와 식물로, 여름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 무화과 스마트 재배기술 선보여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미암면 호포리 무화과 재배포장에서 시범사업 농가와 기술지원단,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화과 노지 스마트 종합모델 시범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노지 무화과 스마트

재배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일사·강우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노지형 에어포그 무인방제 기술이 시연됐다.

영암군은 2025년부터 노지 무화과 재배에 이 기술을 시범 적용해

고온·가뭄과 국지성 호우 등 변화하는 기상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관수는 햇빛과 강우량을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과 생육 안정,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2026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신안군은 6월 25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2026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함께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안군보건소, 섬드리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청소년복지심의위원 6명이 참석해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지원사업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안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